



423km의 대장정을 마치는 순간 삼보의 존귀함에 발의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 듯하다. 회주 자승 스님이 맨발로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佛法僧 三寶’ 존귀함 알리고 중흥 초석 놓다

한다. 이 공덕으로 한국불교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마침내 아홉째 날인 10월 9일 순례단은 범보종찰 해인사에 당도했다. 동이트기 전 가조를 출발한 순례단은 흥류동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해인사에 들어섰다. 이날 27km의 길을 걸은 피곤함도 잠시 쉬없이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팔만대장경을 직접 참배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천리순례단의 원력과 정진을 치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법을

을 찾아왔다. 11일, 순례단은 순례 중 비를 만나 우중행선을 진행했다. 높은 산길을 걸으며 늦더위와 싸워온 순례단에게 갑작스런 비와 이어진 한파는 발을 무겁게 했다.

저마다 고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순례단에서는 웃음꽃이 폈다. 마음으로 서로 밀고 끌며 천릿길을 가는 도반들의 발걸음을 서로 가볍게 했다.

계속된 우중행선 중에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는 순례단에 감동을 선사했다. 12일 폭우를 뚫고 경남 창녕에 도착한 순례단에 현장 주민들은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보시하며 응원했다. 전원이 불자라는 마을주민들은 순례 소식을 먼저 듣고 새벽부터 나와 순례단을 반겼다. 마을의 시설을 내주는 따뜻한 모습에 순례단은 추위를 잊을 수 있었다.

13일 순례단은 백두대간 정맥 지류인 영취산 자락을 넘어 부곡에 도착했다. 산자락의 도로는 인근 공단 차량 등으로 새벽부터 번잡했다.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중흥 대장정 천리순례에는 순례로 걷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대중공사인 포교토크콘서트가 진행된 14일은 순례단의 지친 몸을 치유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날이었다.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순례단은 포교와 전법을 통한 불교 발전을 위해 대중공사의 장을 비우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이날 발제자 중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전

략적인 포교가 필요하다”며 “농어촌 사찰의 포교 한계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찰의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한 포교전법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희망 섞인 제안을 내놨다.

순례 종반부로 갈수록 순례단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15일 부곡을 출발해 밀양까지 29km 순례는 최단시간에 끝났다. 체력을 회복한 순례단은 새벽 일찍 순례를 시작해 사명대사 총절비가 안치된 표충비각과 흥제사를 참배하고 밀양시 인근에서 숙영을 진행했다.

16일 호국보살 표충사에서 표충사당에서 호국성사 앞에서 국난극복에 대한 새로운 서원을 세우고 호국음악제 등을 만끽했다. 이날 저녁에는 조별 자자도 진행돼 순례과정에서의 참하나 아쉬움 등을 털어놓는 자리도 마련됐다.

17일 순례단은 순례 최단 난코스인 사자평을 넘었다. 가장 어려운 구간임에도 가장 많은 일일참가자가 참여한 것부터 이번 순례의 의미를 알수 있는 부분이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국장단은 3일 연속 참여했으며, 중앙승가대학 학인 스님 40여 명을 비롯해 전국의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무명을 걷어내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듯, 정진을 거듭한 순례단 앞에는 드넓은 갈대밭과 떠오르는 아침 태양의 광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에 사자평 칼바람에 흐른 땀이 식고 추위가 느껴질 때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직접 지계를 지고 따뜻한 써뼩을 날랐다. 사자평에서는 순례의 깜짝 이벤트도 마련됐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듣는 소리꾼 장사의 씨의 구성진 노래소리는 행선 중의 어려움을 모두 잊게 하기 충분했다.

사자평 정상에서의 잠깐의 휴식을 뒤로, 순례단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순례단을 반긴 갈대들이 숙영지로 향하는 순례단을 배웅하는 듯 했다.

사자평을 내려온 순례단 앞에는 이제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 참배만이 남아있었다. 순례단 우집인 9월 30일부터 19일, 임제식부터 18일간 힘들었던 과정의 기억은 저멀리 사라지고 모두의 마음에는 한희심만이 가득했다. 취타대의 풍악 속에 순례단이 통도사 산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곳은 이미 연화장세계였다.

순례 과정에서 부르토고 찢어진 발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참배하는 순례단의 간절한 모습에서 불교 중흥의 미래가 희망만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부처님처럼 길 위에서 풍찬 노숙하며 정진한 이들에게 부처님 가피로 대자비한 꽃비가 장엄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는 수많은 이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사찰에서 순례에 관심을 갖고 동참한 것부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현장은 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자리였다.

“인도순례까지 원력 다시 모으자”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기대 교차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 17일 순례 회향을 하루 앞두고 자자회를 열었다. 16일 조별 자자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자자회에서는 전날 조원들이 써 낸 순례 과정에서의 참회와 함께 불교 중흥을 위한 결의 등이 모아졌다.

특히 이날 3조 조장 범인 스님은 “한 분은 무릎에 물이 차고, 한 분은 근육이 찢어짐에도 대중의 힘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며 “한 분은 사찰의 일로 지자체장을 만날 일이 있는데, 회향 후 순례단 모자 등을 그대로 쓰고 만나기로 했다. 조원 전원이 상월결사 인도 부처님 성지순례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해 대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7조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장운정 씨가 발표했다. 장 씨는 “저희 조 모두 삼보사찰 순례에 참석하게 해주신 회주 스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말로 안 해도 느껴지는 자상한 마음, 좋은 도반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마음 등이다. 이번 순례로 인하여 순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했다. 인도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구 스님들을 대표해 5조 조장 지해 스님은 “우리 조원들 모두 포교 원력 살아났다라는 말을 했다. 긴장과 참회와 발원이 교차하는 순례”라고 평가했다. 지해 스님은 “조원들이 혼자 걷지만 함께 가는 길임을 느꼈고, 앞이 흐리다고 생각했던 불교가 삼보순례 천리순례길로 미래가 밝게 보인다”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따르자”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노덕현 기자



해당QR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현대불교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공'에 올라온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뉴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부대중이 자연 속에서 함께 수행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례 열흘째인 10일, 해인사를 출발해 가야산을 내려와 경복 고령에 접어들자 가을이 성큼 찾아 왔음을 알리는 황금빛 들녘이 순례단을 반겼다. 순례단이 가는 곳마다 환영 현수막이 걸렸고, 회향지에는 불자와 마을주민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순례 일일참가자들도 늘었다.

하지만 역경은 끝나지 않았다. 다소 평탄한 길이 이어지는 기대도 잠시 굵은 장대비가 순례단



갑작스런 비에 우의를 입고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우중에도 행선을 이어간 순례단이 불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가을 들녘을 순례단이 걷고 있다.



부곡에서 포교토크콘서트로 대중공사가 진행됐다.



통도사 금강계단 사리탑을 탐독하는 순례단.



자자에서 참회와 기대를 표하는 스님.